| 지난주 침례 인수 |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br>모든 성도가 신선한 헌신 안에서 부흥되어<br>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 2016 침례 인수 |
|---|---|---|
| 3명 | | 15명 |

| 인천 교회 기도 제목 | 몸의 요청 기도 제목 |
|---|---|
| ◎ 올해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br>◎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br>◎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br>◎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br>◎ 강화 그룹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br>◎ 목회자세미나를 축복하소서. | - 독일의 중동 난민들에게 복음 전파 및 목양을 강화하시며 현지 통역자들을 얻으소서<br>- 주님의 사역을 위해 동역자들의 가족들과 건강을 돌보소서.<br>- 성경진리사역원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주변 민원이 해결되게 하소서<br>- 한 새사람을 산출하시고 주님의 신부가 준비되게 하소서 |

##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자매 집회 : 2016.5.12(목) 오전10시 공촌동집회장소

2. 목회자 세미나 (에베소서3차)
① 일 시 : 5.3(화)~5.31(화)까지 매주 오전 10시 ~오후3시
② 장 소 : 학생센터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친구, 성도들
④ 회 비 : 30,000원(중식 및 교제비포함, 대학생은 회비 없음)

3. 고양 교회 청년들 내방(24명)
① 일 시 : 5.14(토)~15(주일) 1박2일
② 접대 및 섞임장소 : 학생센터
* 5.14(토) 애찬 6시, 섞임집회 7시30분
* 각 지역에 청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전국 및 해외 집회 안내》

1. 국제 가을 장로 훈련 및 섞임 여행 안내
① 일 시 : 10.6(목)~8(토)
* 국제 섞임 집회 10.9(주일) 오전 10시~오후12시
* 출국 및 귀국 예정 : 10.5(수)~10.13(목), 변경될 수 있음
② 장 소 : 호주 Sea World Resort Hotel & Conference Center
* 장로 집회는 동역자, 각 교회 장로, 책임형제들 및 장로들의 추천을 받은 형제만 참석 가능함
♧ 섞임 여행
A 코스 : 콜드코스트&브리즈번 (10.9~10.12) 495,000원
* 비용외 경비 : 식비(점심, 저녁), 공항 셔틀비
B 코스 : 시드니 (10.9~13) 610,000원
* 비용외 경비 : 국내선 항공료, 식비(점심, 저녁), 공항셔틀비
③ 신청비 : 360,000원 (국민은행 658101-01-211780 인천교회)
* 숙박, 항공편, 공항과 호텔 간의 교통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④ 신 청 : 5.16(월)까지 집사실로 신청
* 신청금은 반환되지 않음(항공좌석 및 호텔 객실 확보를 위해 사역원에서 비용이 먼저 결제 될 수 있어서 취소할 경우 항공 취소위약금 및 호텔 취소위약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지불해야 함)
* 섞임여행은 모든 성도들 가능함

2. 전국 봉사자 온전케 하는 훈련안내
① 일 시 : 6.6(월)오후 7시-8일(수)12시30분
② 장 소 : 성경진리사역원
③ 대 상 : 봉사 및 봉사를 갈망하는 성도
④ 회 비 : 숙박 81,000원, 출퇴근 29,000원
⑤ 신 청 : 5.16(월)까지 지역별로 취합하여 집사실로 신청
(국민은행 658101-01-211780 인천교회)

3. 전국특별집회 실시간 및 녹화방송 안내

| 집 회 | 집회 날자 | 생방송 시간 | 녹화 가능 시간 |
|---|---|---|---|
| 경기권역 | 6.5(주일) | 9시30분-13시40분 | |
| 서울,강원권역 | 6.5(주일) | 16시-18시 | 6.5일 19시 이후 |
| 호남권역 | 6.10(금) | 19:30-21:30 | 6.10일 22시30분 이후 |
| 충청권역 | 6.11(토) | 11:00-13:00 | 6.11일 14시 이후 |
| 경북권역 | 6.11(토) | 19:30-21:30 | 6.11일 22:30분이후 |
| 경남권역 | 6.12(주일) | 10:00-12:00 | 6.20일 22:30분 이후 |

* 집회시간일 경우는 녹화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

1. 이번주 아침부흥 진도 : 2016년 신춘중국어집회메시지 2

2. 침례소식 : 3지역 손경자자매(4/29)
4지역 이제영형제, 최문호자매(5/1)

## ♠ 2016년 4월 복음에 이르는 교통 헌금과 십일조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4.25.(월) ~ 2016.05.01.(주일)〕

| 지역 | 1지역 (81명) | | | | | | 2지역 (110명) | | | | | | | 3지역 (113명) | | | | | | 4지역 (110명) | | | | | | | | 5지역 (102명) | | | | 6지역 (59명) | | | | 7지역 (23명) | | 계 |
|---|---|---|---|---|---|---|---|---|---|---|---|---|---|---|---|---|---|---|---|---|---|---|---|---|---|---|---|---|---|---|---|---|---|---|---|---|---|---|
| 그 룹 | 학익 | 인하 | 신흥 | 청년1 | 청년2 | 대학 | 간석 | 구월 | 만수 | 장수 | 논현1 | 논현2 | 주안 | 청년 | 연수 | 동춘 | 청학 | 송도 | 선학 | 가좌 | 석남 | 신현 | 가정 | 연희 | 청라1 | 청라2 | 검암 | 당하 | 검단 | 삼산 | 부평 | 청천 | 산곡 | 효성 | 작전 | 계산 | 임학 | 중산 | 운남 | |
| 인수목표 | 120 | | | | | | 157 | | | | | | | | 144 | | | | | 154 | | | | | | | | | 146 | | | | 82 | | | | 40 | | 803 |
| 주의상 | 19 | 14 | 16 | 14 | 9 | 9 | 15 | 14 | 13 | 14 | 12 | 16 | 20 | 6 | 26 | 22 | 23 | 25 | 17 | 16 | 8 | 5 | 10 | 15 | 9 | 13 | 9 | 13 | 12 | 27 | 30 | 25 | 20 | 19 | 16 | 10 | 14 | 10 | 13 | 598 |
| 기 도 | 4 | 5 | 6 | 3 | 3 | | | 8 | 2 | 7 | 6 | 4 | 11 | | 11 | 7 | 11 | 10 | 8 | 9 | 5 | 3 | 4 | 10 | 5 | 6 | 4 | 3 | 2 | 7 | 13 | 13 | 6 | 6 | 6 | 7 | 6 | 6 | 6 | 233 |
| 그 룹 | 7 | 7 | 8 | 10 | 4 | | 4 | 8 | 5 | 7 | 6 | | 13 | | 18 | 8 | 18 | 12 | 10 | 9 | 6 | 2 | 3 | 10 | 5 | 7 | 4 | 11 | | 5 | 14 | 14 | 15 | 9 | 9 | 6 | 8 | 10 | 4 | 296 |
| 아침부흥 | 10 | 8 | 7 | 7 | 3 | | | | | | | | | | | | | | | | 8 | 5 | | | | | | 2 | | 10 | 23 | 16 | 13 | 14 | 7 | | 6 | 2 | 7 | 148 |
| 어린이 | 11 | | | | | | 20 | | | | | | | | 13 | | | | | 22 | | | | | | | | | | 18 | | | | 8 | | | | 6 | | 98 |
| 어린이소그룹 | | | | | | | 6 | | | | | | | | 12 | | | | | 4 | | | | | | | | | | 7 | | | | | | | | 6 | | 35 |
| 중고등부 | 8 | | | | | | 3 | | | | | | | | 10 | | | | | 7 | | | | | | | | | | 12 | | | | 10 | | | | 3 | | 53 |


#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5. 08. 16-19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032-566-0190 FAX 032-567-019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E-mail : triune@nate.com


##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행20:24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은혜는 우리가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과정을 거쳐 완성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본 날로부터 은혜에 관한 빛과 계시가 계속 증가해 왔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 은혜는 최고의 계시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실 때, 축복이 아닌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다고 말한다. 17절은 은혜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한다. 은혜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신 삼일 하나님이시다.

신약은 은혜란 삼일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 우리의 생명으로, 모든 것으로, 누림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임을 계시한다. 그분은 필요한 과정들을 거치신 후에 완성되셨다. 신성한 삼일성이 과정을 거쳐 완성되셨을 때, 그 영이 그 셋 가운데 계셨다. 우리는 그것을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완전한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아들만이 아닌 아들과 함께한 아버지와 영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 것에 따르면, 그 영은 필요한 과정을 거쳐 생명주는 영으로 완성되어(고전 15:45) 믿는 이들 안에 들어와 생명과 본성과 모든 것이 되셨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 가장 큰 진리, 가장 큰 계시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육신만큼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17절은 은혜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한다.

우리가 은혜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점을 보아야 한다. 성경 전체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언가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안식일의 원칙은 우리 자신을 정지시키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사람아, 너는 혼자서 네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온 우주 안에서 오직 나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럴 뿐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네 구원이 될 수 있다. 나는 네가 무언가 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안식하면서 나로 하여금 너를 위하여 무언가 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은혜이다.

은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이신(is)」 것과 … 믿어야 할지니라』 -과 일치한다. 그분은 「이시고」 우리는 아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화이며, 우리는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져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시며, 이 모든 것이 은혜이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은혜이다.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신약은 삼일성 안에서 과정을 거쳐 완성되신 삼일 하나님의 성육신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歷史)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체가 두 번 바뀌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원래 다만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한

다. 그리고 14절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형체가 바뀌어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신 것이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나니』라고 말한다. 마지막 아담은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 후에 육신이 되어 마지막 아담이 되셨으며, 이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것이다. 첫 번째 형체의 변환은 성육신이었으며, 두 번째 형체의 변환은 그 영 되심이었다.

그리스도께는 두 사역, 즉 땅에 속한 사역과 하늘에 속한 사역이 있다. 그리스도의 땅에 속한사역은 육신을 입으신 그분에 의해 부활의 때까지 수행되었다. 그분의 성육신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삼십삼 년 반이 걸렸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역사였다. 땅에 속한사역의 끝무렵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실재의 영이 오시기 전에는 그분이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계실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 안에 계실 수는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그 영이 되셔야 했다(요 14:16-20 참조).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땅에 속한 사역으로는 그분의 역사가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심으로 역사의 나머지 절반을 이루셔야 했다. 바울은 그의 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거듭 언급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한다. 바울은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4:19)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집을 만들고 계신다고 말했다(4:19). 이분은 영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성이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셨고, 아들은 그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총체요 집대성이다.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성이다.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성은 생명 주는 영이다. 생명 주는 영은 그리스도의 공기 같은 영의 형체이다. 그러므로 생명 주는 영은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신 그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자신, 내주하는 영이 번갈아가며 사용된다. 이들은 네 인격이 아닌 한 인격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리스도 자신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존재 안으로 삼일 하나님을 분배하는 생명 주는 영이시다.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은혜는 성육신하신 삼일 하나님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삼일 하나님은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동정녀에게서 출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시어 은혜로서 사람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 오셨다. 두 번째 단계에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마지막 아담은 죽음과 부활을 거쳐 생명 주는 영이 되시어 은혜로서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 이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신 삼일 하나님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근원과 요소와 본질이 되게 하려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 안에서 과정을 거쳐 완성되신 삼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확장과 표현인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것이다.

땅에 속한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수행하신 것으로서, 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신 것이었다. 그분은 지금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분배하는 하늘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다. 신약이 가르치는 것은 신약 경륜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마태복음 첫 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신약 이 십칠 권 전체가 신약 계시이다. 이 계시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서, 주로 세 사도-요한복음과 세 서신과 계시록을 쓴 요한, 열네 서신을 쓴 바울, 두 서신을 쓴 베드로-가 말한 것이다. 그들의 가르침을 사도들의 가르침이라 부른다. 사도들의 가르침인 신약 경륜, 곧 신약 계시는 몇 가지 주요한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 성육신하심이다. 마태복음 1장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다음, 이 성육신 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삼십 삼 년 반 동안 사셨다. 사복음서에는 이 인생이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셨다.

이 다섯 가지 중점-성육신, 인생, 죽음, 부활, 승천-은 모두 교회를 산출한다. 하나님의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나오는 산물이 있다. 그렇게 하여 오순절날 교회가 산출되었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과 신부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한 가지 것, 곧 하나의 집대성이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우리는 신약 경륜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및 이 다섯 단계로부터 나온 산물을 함축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신약 계시이자 사도들의 가르침인 신약 경륜이다.

*〈고봉메시지 로마서 결정 연구2. 19장, 24장에서 발췌〉*



#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야 함

**롬12:2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낡은 관념들을 뒤집음으로써 낡은 느낌과 취향과 사상 등의 모든 낡은 것을 제거하여 결국 가정 집회가 내적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며 다른 이들을 먹이기 위해 우리는 가정 집회를 사용한다. 가정 집회가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 되도록 가정에서 기도하고 떡을 뗀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증가율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집회에서 몇 사람만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살아 있고 신선한 방식으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이것이 참된 복음화이다.

**우리의 옛 관념을 내려놓고 주님의 현재 회복의 새 관점을 취함**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옛 관념을 내려놓고 주님의 현재의 회복그룹들과 지역들에 대한 조망을 취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재료가 필요하다. 학개서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1:8)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우리는 문 두드리기 위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잘못된 이해와 위치에서 구출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교통했다. 우리는 모두 복음 전하는 많은 길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지만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유일하게 복음을 위해 삶**

나의 의도는 다음과 같은 것에 인상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우주 안에서 오늘 이 땅 위에 복음이라 불리는 것, 즉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살도록 분부를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이다. 주님은 이 복음을 위해 단일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직업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가?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가련한 인간 사회는 그렇게 많은 활동(행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목표는 없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는가? 우리의 목표는 복음이요, 우리의 복음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생명공급과 만유를 포함한 누림이 되시는 과정을 거쳐 그 영 되신 삼일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 그러한 복음을 위해 유일하게 사는 것은 얼마나 놀라우며 영광스러운가!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도록 우리 각자가 다 깨어날 필요가 있다. 더 높은 수준의 생활 같은 것을 잊어버리라.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가기 위해 매주 2시간을 남겨 두라.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집과 소유물을 돌보지 말라거나 당신의 집 잔디를 깎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먼저 매주 2, 3시간 문을 두드려야 한다. 자, 우리 모두 이것을 먼저 하자. 그러고 나서 언제라도 시간이 남으면 또다시 2, 3시간을 드려서 나가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당신이 복음을 위해 단일하게 삶으로써 주님께 신실하다면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이다. 그분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당신이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한다면, 그분의 왕국과 의에 더하여 당신의 모든 매일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우리의 관념을 뒤집음으로써 체제를 바꿈**

우리의 관념 전체를 바꿔야만 한다. 조직화된 것, 웅장한 것, 겉만 번듯한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외관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실질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드시 모든 가정 집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정 집회를 갖는 것을 소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옛 관념을 붙잡는다면 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획일성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유기적인 방식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서 억눌릴 것이다. 우리의 관념이 철저히 바뀌고 새 길의 본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합당하고 절대적으로 실행하기를 소망한다.

**만일 가정 집회가 성공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성공적일 것이다**

가정 집회가 성공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도 성공적일 것이다. 가정 집회가 성공적이지 않다면 새 길을 위해 이전에 했던 모든 노력들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길에 대해 분명해지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외적으로는 많은 칭찬과 격려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은 칭찬할 만하거나 격려할 만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기독교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할 수 없다. 검은 것과 비교하지 말고 황토와도 비교하지 말라. 그 대신에 황금과 비교하라. 우리 속에 얼마만큼의 금을 가지고 있는가? 생명과 진리와 빛과 체험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풍성해야 하고 또한 숙련된 단계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가 행하는 길을 계속 훈련해야 한다.

**복음을 확산하는 정상적인 길의 습관을 세움**

신약복음의 제사장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확산을 위해 정상적인 방식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행 8:4-5). 그러한 습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논리에 있어서 심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복음에 관하여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심리가 잘못되어 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전파에 있어서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심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논리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흔히 복음 전파의 천연적인 길은 복음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좋은 전도자나 최고의 연사를 초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친척들을 그러한 전도자의 집회에 초대하여 제단의 부름에 응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남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친척들을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성경적인 길을 취해야 한다. 몇 달 후에 한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 다른 이들을 접촉할 것이다. 몇 년 후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의해 얻어진바 될 것이다. 이것이 살아 있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24과에서 발췌〉*